

기독교가 한국사회에 기여한 것, ‘해방 전은 항일민족운동, 해방 후는 민주화운동!’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아펜젤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와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40년이 흘러 2025년은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와 관련 한국교회 주요 기관, 교회들이 140주년 기념 세미나,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기독교 14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는 지난 역사 속에서 한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해왔는지 되짚어보고,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목회데이터연구소는 ‘한국교회의 한국사회 기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는 작년 10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의 의뢰로 진행하였는데, 여기서는 한국교회의 사회적 기여도를 해방 전후로 나누어 살펴보고, 향후 교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고자 한다.

한국선교

기념

주일예배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의 한국사회 기여에 대한 조사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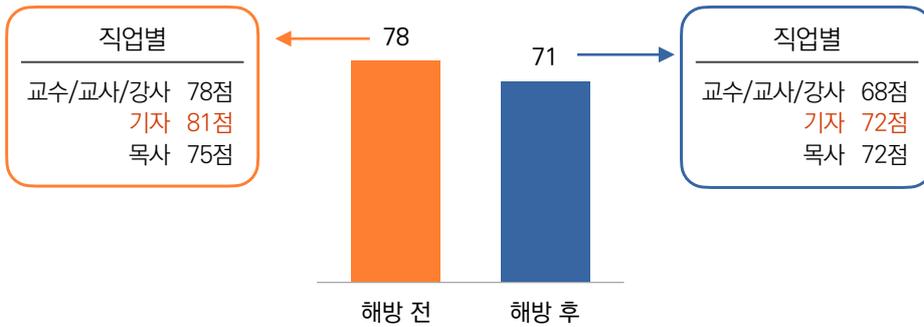
구분	내용
조사 대상	크리스천 오피니언 리더 (교수, 목사, 역사교사, 언론인 등)
조사 방법	리스트를 활용한 모바일 조사 - 본 설문 전에 7명의 기독교 각 분야별 리더를 대상 사전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함
표본 규모	총 140명 (유효 표본)
표본추출방법	편의추출(Convenience Sampling)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24년 10월 25일 ~ 11월 6일(12일간)
조사 주체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조사 연구/분석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01

[한국 기독교, 과거와 현재 평가] 기독교의 한국사회 기여도, 해방 전이 해방 후보다 높아!

- 기독교가 한국사회 발전에 미친 영향력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해방 전' 영향력 평가는 78점으로, '해방 후' 71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해방 전후 모두 기자 직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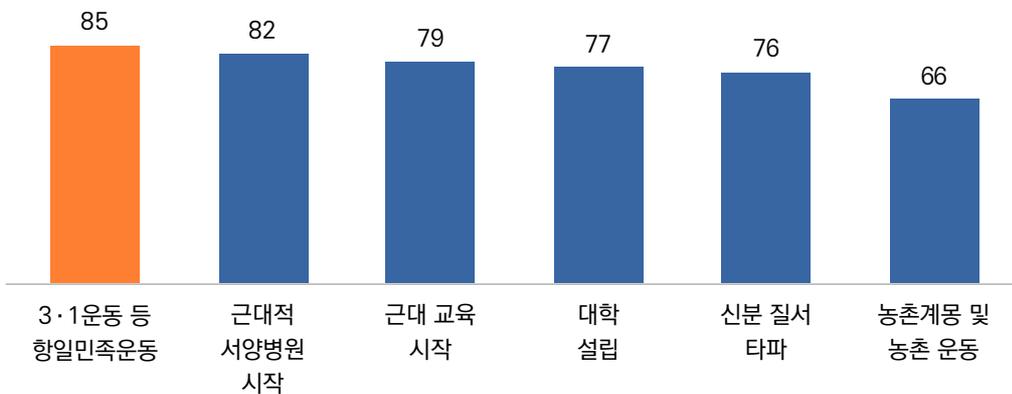
[그림] 기독교가 한국사회 발전에 미친 영향 (100점 만점 기준, 점)



해방 전 기독교, '항일민족운동'(85%)으로 가장 큰 사회 기여!

- 해방 전 기독교가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3.1운동 등 항일민족운동'이 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근대적 서양병원 시작' 82%, '근대 교육 시작' 79%, '대학 설립' 77%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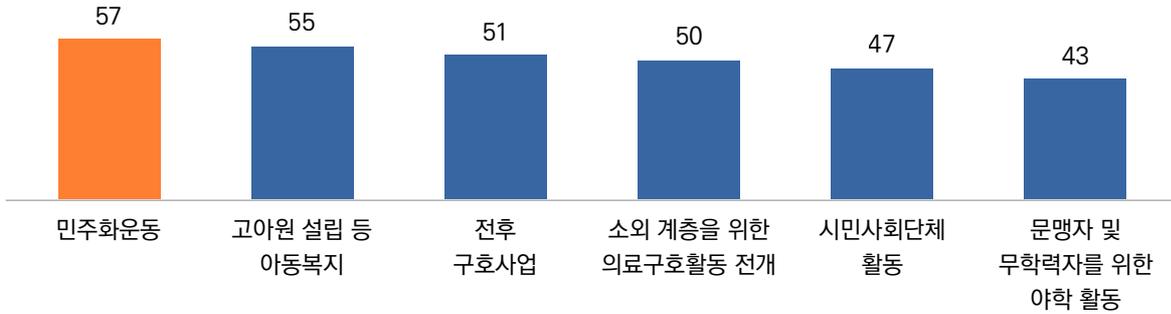
[그림] '해방 전' 기독교가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것 (중복응답, 상위 6위, %)



해방 후엔 ‘민주화운동’(57%)과 ‘아동복지’(55%)!

- 해방 후 기독교가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한 내용으로는 ‘민주화운동’이 5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아원 설립 등 아동복지’ 55%, ‘전후 구호사업’ 51%, ‘소외 계층을 위한 의료구호활동 전개’가 50% 이상의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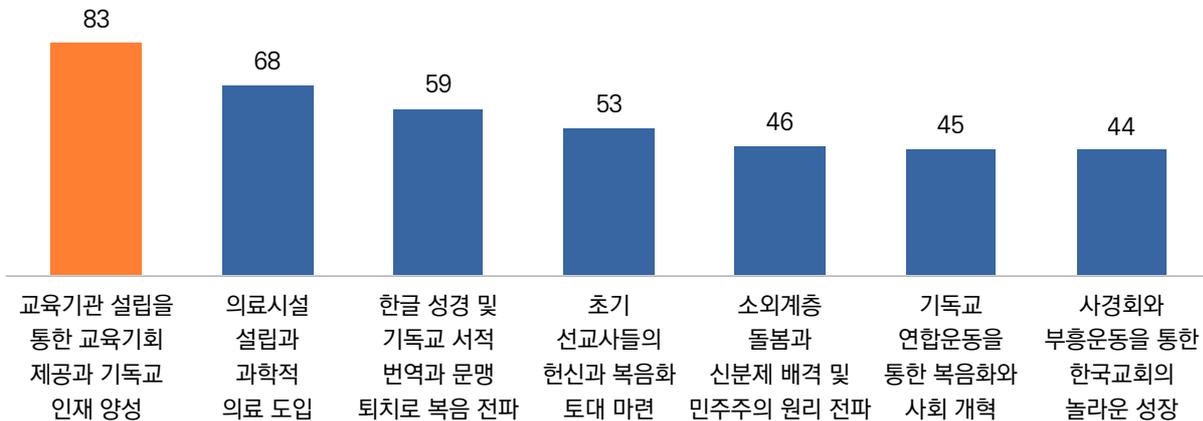
[그림] ‘해방 후’ 기독교가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것 (중복응답, 상위 6위, %)



해방 전 교회 성장의 핵심 활동, ‘교육 선교’(83%)가 주도!

- 한국 기독교의 성장을 가능하게 해준 ‘해방 전’ 교회 내·외부 주요 활동에 관해 묻은 결과, ‘교육기관 설립을 통한 교육기회 제공과 기독교 인재 양성’이 83%로 가장 높았다. ‘교육 선교’가 해방 전 한국교회 부흥과 전도에는 주효했던 것이다.
- 그다음으로 ‘의료시설 설립과 과학적 의료 도입’ 68%, ‘한글 성경 및 기독교 서적 번역과 문맹 퇴치로 복음 전파’ 59% 등이 뒤를 이었다.

[그림] ‘해방 전’ 한국 기독교 성장을 가능하게 해준 교회 내·외부 활동* (중복응답, 상위 7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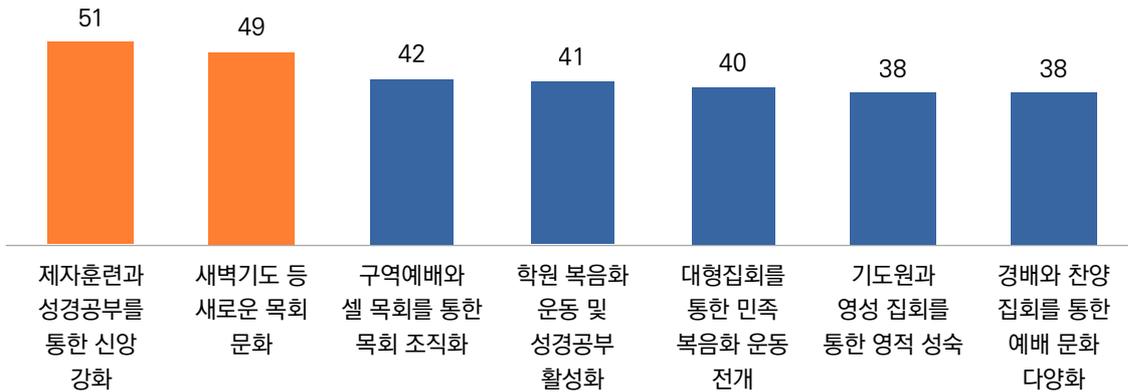


*무응답자 제외

해방 후 교회 부흥 이끈 핵심 활동, ‘성경공부·새벽기도’!

- ‘해방 후’ 한국 기독교의 성장을 이끈 주요 활동으로는 ‘제자훈련과 성경공부를 통한 신앙 강화’와 ‘새벽기도 등 새로운 목회 문화’가 각각 51%, 4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구역예배와 셀 목회를 통한 목회 조직화’ 42%, ‘학원 복음화 운동 및 성경공부 활성화’ 41%, ‘대형집회를 통한 민족복음화 운동 전개’ 40% 등의 순이었다.
- ‘해방 전’의 기독교가 교회 외적의 사회 인프라 구축과 복음화의 토대를 만드는 데 치중했다면 ‘해방 후’에는 교회 내부 조직을 강화하고, 제자훈련/성경공부/새벽기도 등 본격적인 신앙 강화를 통해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그림] ‘해방 후’ 한국 기독교 성장을 가능하게 해준 교회 내·외부 활동* (중복응답, 상위 7위, %)



*무응답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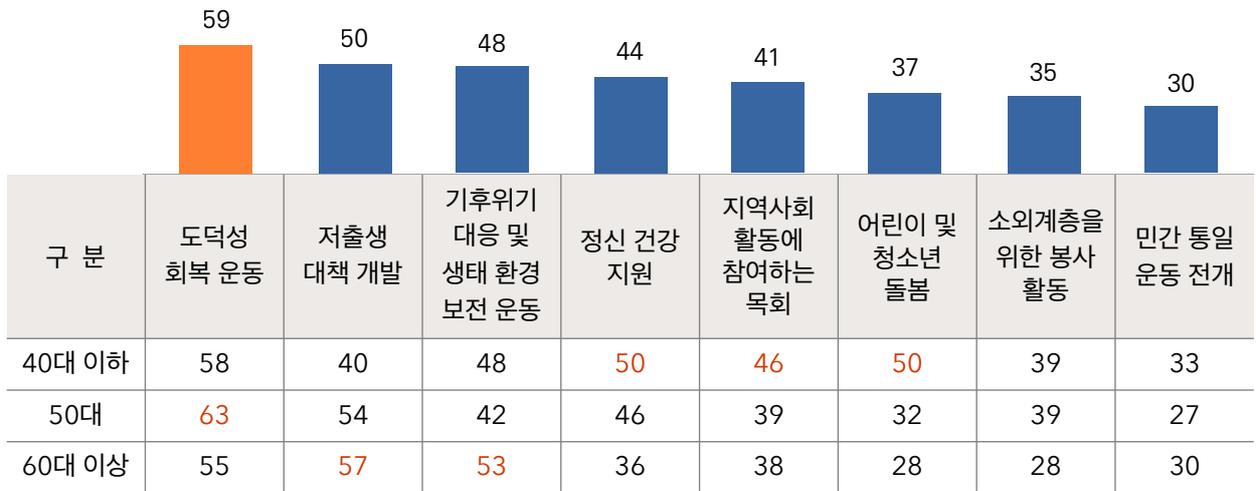
02

[한국교회의 과제]

사회발전기여 위해 강화해야 할 교회 활동, '도덕성 회복 운동'!

- 기독교가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어떤 분야 활동을 강화해야 할까? 조사 결과, '도덕성 회복 운동'(59%)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저출생 대책 개발' 50%,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 환경 보전 운동' 48%, '정신 건강 지원' 44% 등의 순이었다. '도덕성 회복 운동'을 제외하고는 현재 한국사회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것들이다.
- 다만 연령별로는 교회가 강화해야 할 활동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달랐다. '도덕성 회복 운동'에 대해서는 50대가, '저출생 대책 개발'과 '기후위기 대응'에는 60대, '정신건강 지원', '지역사회 활동 참여하는 목회', '어린이 및 청소년 돌봄'에 대해서는 40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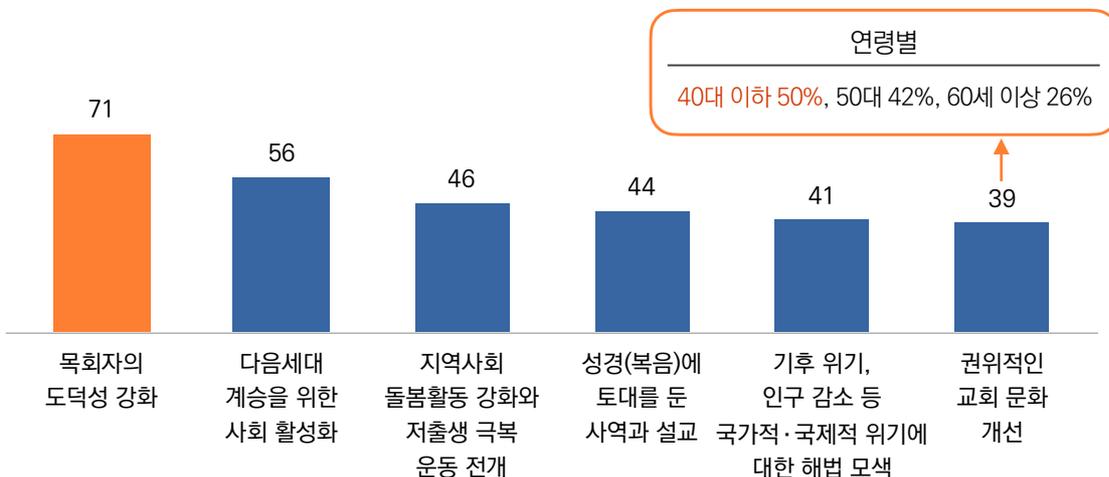
[그림] 기독교가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강화해야 할 활동 (중복응답, 상위 8위, %)



한국교회의 우선 과제, '목회자의 도덕성 강화', '다음세대 사역 활성화'!

- 이번에는 향후 한국교회가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 결과, '목회자의 도덕성 강화'가 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음세대 계승을 위한 사역 활성화' 56%, '지역사회 돌봄 활동 강화와 저출생 극복 운동 전개' 46% 등의 순이었다.
- 한편 '권위적인 교회 문화 개선'을 우선순위로 꼽은 비율은 40대 이하 저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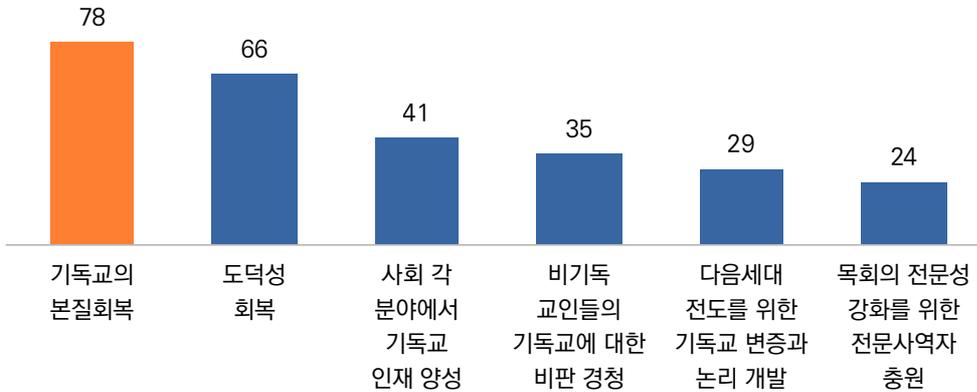
[그림] 향후 한국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 (중복응답, 상위 6위, %)



향후 한국교회 성장의 열쇠, ‘본질·도덕성 회복’!

- 향후 한국교회의 성장을 위해 강화해야 할 점을 묻은 결과, ‘기독교의 본질회복’이 1순위로 나타났다. 다만, 여기에서도 ‘한국사회 발전을 위해 교회가 강화해야 할 활동’과 ‘향후 한국교회가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도덕성 회복’이 2순위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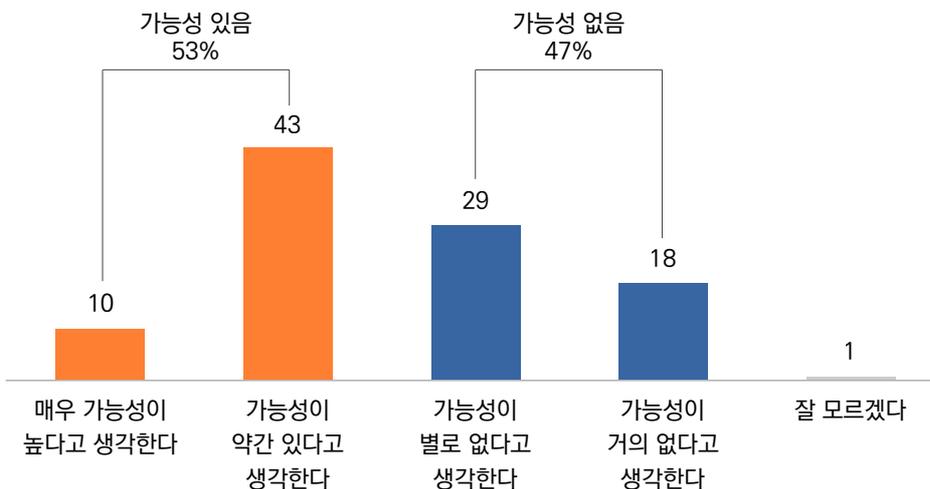
[그림] 향후 한국교회 성장을 위해 강화해야 할 것 (중복응답, 상위 6위, %)



현재 교회 개척 시, ‘자립 가능성 있다’ 53% vs ‘없다’ 46%로 전망 엇갈려!

- 지금 교회 개척 시 자립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가능성 있음’ 53%, ‘가능성이 없음’ 46%로 응답해 긍·부정 의견이 갈렸다.
-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환경에서 현재 개척 시 ‘자립 가능성 있다’는 응답이 53%나 된다는 것은 오피니언 리더층이 교회 개척에 대해 희망적 의견을 어느정도 보여주고 있어 고무적이다.

[그림] 현재 교회 개척 시 자립교회로 성장 가능 여부* (%)



*무응답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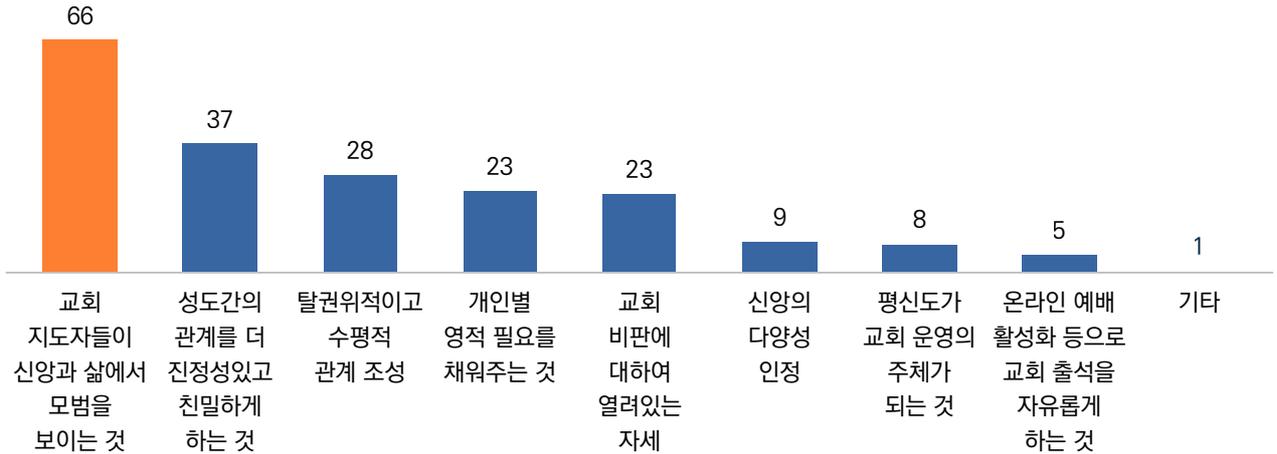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03

[한국교회의 방향성: 미래를 위한 전략과 비전] 가나안성도의 교회 복귀, '교회 지도자의 모범'이 핵심 key!

- 가나안성도를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조사 결과, '교회 지도자들이 신앙과 삶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6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성도 간의 관계를 더 진정성 있고 친밀하게 하는 것' 37%, '탈권위적이고 수평적 관계 조성' 28%, '개인별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 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 교회 리더십의 숭선수범과 모범적 태도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림] 가나안성도를 교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 (중복응답, %)



*무응답자 제외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제언, '본질회복', '복음', '다음세대' 강조!

-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한 의견(자유응답)을 모아 키워드별 분류하여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분석하였다. '본질회복'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복음', '다음세대', '초대교회', '성경', '도덕성 회복', '목회자의 각성과 변화' 등에 대한 의견 순이었다.

[그림]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한 의견 (자유응답)



이번호 요약

1. 기독교가 한국사회에 기여한 것, ‘해방 전은 항일민족운동, 해방 후는 민주화운동’!

- 해방 전 기독교가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는 ‘항일민족운동’이 85%로 가장 높았고, 해방 후에는 ‘민주화운동’(57%)이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해방 후 교회 부흥 이끈 핵심 활동, ‘성경공부·새벽기도’!

- ‘해방 후’ 한국 기독교의 성장을 이끈 주요 활동은 ‘제자훈련과 성경공부를 통한 신앙 강화’와 ‘새벽기도 등 새로운 목회 문화’가 각각 51%, 49%로 가장 높았다.

3. 교회가 우선 다뤄야 할 과제, ‘목회자의 도덕성 강화’, ‘다음세대 사역 활성화’ 순!

- 그렇다면 향후 한국교회가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 ‘목회자의 도덕성 강화’가 71%로 가장 높았고, ‘다음세대 계승을 위한 사역 활성화’(56%)도 2위로 꼽혔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영상] 보도특집 3부작 선교 140주년, 한국을 바꾸다 | 1부 감리교 (CBSJOY)

관련 성경 구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누가복음 24:47)

목회 적용점

2025년은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으로, 교회가 사회와 역사에 기여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전환을 준비할 중요한 시점이다. 조사 결과는 과거 교육, 의료, 항일운동 등을 통해 사회적 기반을 다졌던 교회가, 해방 이후에는 신앙 강화 중심의 내적 성장에 주력해왔음을 보여준다. 이제는 교회가 한국사회가 직면한 현실 문제에 응답하며 공적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때이다.

2025년 2월 발간된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에 따르면, 사회봉사는 교회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사회봉사를 교회의 필수적 의무로 인식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앙이 개인적·사적 영역에만 집중되는 현대 신앙인의 현실을 보여준다. ‘우리 교회만, 우리 가족만, 나만 하나님 믿고 잘되면 된다’는 자기중심적이고, 내부 지향적인 신앙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돌봄과 봉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다만 이제는 기존의 사회봉사 영역을 넘어, 국가의 복지체계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대응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번 조사에서 한국교회가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로 제시된 ‘목회자의 도덕성 강화’와 ‘다음세대 사역 활성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족종교화가 심화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그의 부모에 해당하는 30~50대를 위한 부모교육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이러한 실천들이 궁극적으로 복음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